



# “‘덕혜옹주’ 연기 잘 표현 돼 만족”

### 영화 ‘덕혜옹주’ 손예진...주연 뿐 아니라 투자자로서 참여

통상 배우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자신의 연기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 연기 좋다’라는 칭찬에 배우들은 대체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애써 부정한다.

하지만 영화 ‘덕혜옹주’에서 주인공인 덕혜옹주를 연기한 손예진은 달랐다. 그는 “만족도가 높았다”며 솔직한 자신의 심정을 드러냈다.

‘덕혜옹주’는 대한제국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의 비극적 인생을 그린 영화다.

그는 전날 열린 시사회에서 완성된 영화를 처음 보고서는 평평 울었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냉철한 시각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통 제가 출연한 영화를 볼 때 절대 만족스럽지 않고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다”며 “이번 영화는 제가 ‘어떻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후회가 적은 영화였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자신의 연기에 만족하고 그 연기가 영화적으로 잘 표현됐다는 의미다.

영화를 ‘냉철한 시각’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은 본인이 영화 초반부터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영화 초반에는 아역 배우가 덕혜옹주를 연기했다.

그는 ‘클래식’(2002) 이후 출근 주연을 맡았지만 ‘덕혜옹주’에서 처음으로 타이틀 롤을 맡았다. 출연분량은 박해일이 연기한 독립운동가 김장한 역보다 적었지만 영화제목과 같은 배역을 연기해야 하는 데 따른 부담감이 적지 않았다고 했다. 게다가 실존인물을 연기하는 것도 처음이었다.

그는 “출연 결심을 할 때 망설이지 않았는데, 첫 촬영을 앞두고 겁이 나 저 자신을 주체할 수 없었다”며 “감정적으로 센 장면을 어떻게 연기할 것인가. 마지막까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었다”고 말했다.

손예진은 이번 영화에서 주연뿐 아니라 투자자로서 참여했다. 영화 제작 비용으로 10억원을 냈다.

“영화가 예산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지 않나. 영화가 시대극이어서 스케일이 커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더 완성도 있는 장면을 찍고 싶었습니다. 스태프들이 여유 있는 상황에서 영화를 찍을 수 있게 하려고 감독님과 소속사랑 상의해서 투자하게 됐습니다.”

그는 “배우로서 대본 각색에 참여하고 촬영하면서 감독님과 대화하다 보면 ‘관객이 이런 영화를 좋아할 것 같다’는 아이템이 떠오를 때가 있다”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지니 (영화제작에 대한) 욕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영화를 연출한 허진호 감독과는 ‘외출’(2005) 이후 10년 만에 다시 만났다.

실존인물인 덕혜옹주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덕혜옹주’에서 박해일이 연기한 ‘김장한’은 실제 기록상에는 단 한 줄 언급되는 인물이다.

고종이 생전 의동팔인 덕혜옹주와 정혼시키고자 했던 이가 바로 ‘김장한’이다. 덕혜옹주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일본 유학길에 오르고 일본인 귀족인 소 다케유키와 결혼하면서 그의 이름도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

영화 ‘덕혜옹주’는 그런 ‘김장한’을 독립운동가이

자 끝까지 덕혜옹주를 지키고자 했던 인물로 다시 스크린 위로 불러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독립투사지만, 동시에 덕혜옹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의 모습은 로맨틱하다.

‘김장한’을 연기한 박해일은 “‘김장한’이라는 캐릭터는 허진호 감독식 감성이 고스란히 들어간 캐릭터”라며 “(냉철해야 하는) 군인이지만, 감성에도 충실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덕혜옹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덕혜옹주의 삶을 그린 영화다. 당연히 ‘덕혜옹주’ 역의 손예진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더 갈 수밖에 없다.

박해일은 “영화가 ‘덕혜옹주’는 아니니 당연한 일”이라고 반 농담으로 말하면서 “암울했던 시대에 진지하게 접근해볼 수 있는 캐릭터가 있으면 하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같이 호흡을 맞춘 손예진에 대해서는 “처음 만났을 때 이미 (덕혜옹주로서의) 준비가 돼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촬영에 들어가면 무서운 집중력을 보여주는 배우”라고 설명했다.

박해일은 이번 작품에서 ‘은교’에 이어 또 한번 노인 역할에 도전했다.

해일은 “노인 역이 나름대로 중독성이 있는 것 같다”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고 배우로서 관점은 무기를 장착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분장을 통해 캐릭터의 나이대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은 배우에게는 장점이고, 관객이 볼 때 그럴싸하게 작품에 잘 녹아들게 보인다면 성공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파일럿 대란 SBS 시청률 사로잡을까



SBS는 최근 9년간 방송하며 정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던 ‘스타킹’을 폐지했다. 국민 MC 유재석을 내세운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도 다음 시즌을 기약하며 막을 내렸다.

화려한 출연진으로 화제를 모은 ‘신의 목소리’는 지난 설 연휴 파일럿(시범제작) 프로그램을 내보낸 뒤 정규 편성돼 첫 방송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지난 8월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됐다.

이들 프로그램의 평균 시청률은 4~5%를 오갔다. SBS는 이들 프로그램의 공백을 채울 ‘후보’들을 파일럿 형식으로 경쟁시키고 있다.

파일럿 제작 바람은 예능에 그치지 않고 교양 프로그램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연예·여행·양방향 트렌드 다 모은 SBS 파일럿 프로그램 ‘최근 잇달아 방송된 SBS의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최근의 방송 트렌드가 다 모였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

‘다시 쓰는 육아일기-미운 우리 새끼’(20일 방송·사진)는 우리 사회의 ‘비혼’ 트렌드를 반영하듯 노총각인 3명의 연예인과 그 어머니가 나왔다. 결혼 적령기가 지났음에도 특별히 결혼에 절박해 하지 않는 이들의 일상을 어머니가 관찰 카메라를 통해 본다. 아들에게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잔소리를 보태기도 한다.

‘꽃놀이패’(15~16일 방송)는 이미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은 여행 소재에 시청자 참여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입혔다. 네이버 V라이브 생방송 투표를 통해 ‘꽃길’ ‘휴길’ 팀으로 나뉜 연예인 6명의 여행 경로를 결정하도록 한 것.

탁재훈과 최자의 거침없는 발언으로 화제가 된 ‘셀프디스코 클럽-DISCO’(이하 디스코·25일 방송)는 스스로 자신의 ‘흑역사’를 밝히는 솔직함으로 시대를 반영했다는 평을 받았다.

일단 눈에 보이는 시청률로 본 지금까지의 성적은 ‘미운 우리 새끼’가 7.3%(닐슨코리아, 전국)로 가장 높다. ‘꽃놀이패’가 5.6%, 디스코 3.0% 순이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육성 PD의 자연을 담은 한끼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쁜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40 SBS 생활경제 5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태왕) 50 안녕 우리말(재)	00 이웃집 찰스(재)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닥터365 05 세상발전 유레카
12	00 KBS 뉴스 12	00 월화드라마 (뷰티풀 마인드)(재)	00 MBC 정오 뉴스 20 통일 전망대	00 SBS 12 뉴스 50 닥터 365 55 열린공간 토크 talk(재)
1	00 여름특선 행복한 지도 30 여름특선 영상앨범산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재)	55 TV블로그 꿈지락
2	00 2016 리우올림픽 특집 다시보는 대한민국 올림픽 명승부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	00 키즈 사이언스 5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3	15 2016 리우올림픽 특집 (리우, 우리 별을 꿈꾸다) 4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0 강성애니 하루 55 튜닝생체조 (재)	00 자동공부책상 위기 2 30 TV유치원	00 MBC 뉴스 10 독?특! 키즈스쿨 55 깨미탐험대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다큐멘터리 3일(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목 30 SBS 뉴스투데이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건강문庫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25 별난 가족	30 2016 리우올림픽 특집 (리우, 우리 별을 꿈꾸다) 55 수상한 휴가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뷰티풀 마인드)	00 월화 특별기획 (몬스터)	00 월화드라마 (닥터스)
11	00 KBS 뉴스라인 40 넷워킹기획 문화산책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여행 길	10 신의 직장
12	20 해외걸작다큐 (우리가 모르는 쌍둥이의 비밀)	40 2016 리우올림픽 특집 (리우, 우리 별을 꿈꾸다) (재)	10 MBC 뉴스24 3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45 스포츠 특선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예 05:30 건강한 아침 05:40 성공시대 가는 한국인 (음집, 바다에 배를 띄우다 선박 응접 유영구)	09:40 라이벌 토크 부모 (내 딸은 친구 복사기) 10:30 한국기행 (재) (음집, 바다에 배를 띄우다) (문동일의 해녀차츰)
06:10 EBS 특별기획 통찰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시대공감 (스토리 그곳) 12:40 지식채널 e
07:30 로보카 폴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덩동명 유치원 1~3 08:45 코코코 다코 09:00 캐니멀 09:30 원더볼츠	12:45 EBS 스페셜 프로젝트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3:50 원더볼츠(재) 14:00 미술탐험대 14:30 뽀롱뽀롱 부르미즈
15:00 모피와 친구들 15:10 세계사 시간여행 15:20 피터 래빗 15:35 꼬마기사 마이크 15:50 으랏차차 아이쿠 16:00 캐니멀(재) 16:30 코코코 다코 16:45 덩동명 유치원 1~3(재) 17:30 로보카 폴리(재)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8:00 생방송 퓌독! 보니하니 1~4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재)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20:40 다큐 오늘 (바다에서 좋다) 20:50 세계테마기행 <여름의 선물, 알래스카 1부 생명이 꿈틀대는 땅> 21:30 한국기행 <하늘 아래 첫 동네 1부 건다 보면 꼬마루> 21:50 EBS 다큐 프리인 <남버스 4부 신의 손짓, 영> 22:45 달라졌어요 23:35 시대 공감 (스토리 그곳) 24:05 지식채널e(재) 24:10 EBS 특별기획 통찰(潮擘)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일 (음 6월 29일 乙卯)

<b>子</b>	48년생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 60년생 노력에 비해 효과는 별로이다. 72년생 주관에 사로잡힌다면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 84년생 상대의 속셈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b>행운의 숫자 : 91, 97</b>	<b>午</b>	42년생 자연스러움이 제일 무난하다. 54년생 규칙적이고 계속 이어야만 효과를 보는 법이다. 66년생 복잡해지면서 혼란스러움을 야기하는 정황이다. 78년생 마음을 꼭 내려놓고 믿어도 된다. <b>행운의 숫자 : 45, 42</b>
<b>丑</b>	49년생 서류에 편승하면 무난하다. 61년생 소기의 결심에 따른 만족도가 상당히 높겠다. 73년생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니 각오해야겠다. 85년생 미리 준비해왔다면 지금부터 빛을 보게 되는 길목에 들어선다. <b>행운의 숫자 : 03, 39</b>	<b>未</b>	43년생 무의미한 과정은 미련 없이 삭제하는 것이 유용하다. 55년생 한결같은 마음으로 임하라. 67년생 지리멸렬한 소강상태를 뒤로하고 생산적인 판국으로 접어들었다. 79년생 기본적인 것이 누락되어 애를 먹겠다. <b>행운의 숫자 : 50, 98</b>
<b>寅</b>	50년생 나타나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니 예의 주시 하라. 62년생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의 의사에 따라 쫓아 할 형국이다. 74년생 문혀 버릴 뻔한 사실이 드러난다. 86년생 적부의 판단을 해야 할 임장이 된다. <b>행운의 숫자 : 17, 75</b>	<b>申</b>	44년생 결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월하다. 56년생 의외의 인물과의 만남이나 진귀한 기회를 접할 수 있으리라. 68년생 속히 진행할수록 성과가 두드러진다. 80년생 지금 관리해 두는 것이 이익이다. <b>행운의 숫자 : 12, 58</b>
<b>卯</b>	51년생 속히 결정하지 못한다면 좋은 기회를 놓치기 쉽다. 63년생 본격적으로 나서기에는 아직 이르다. 75년생 마음을 가다듬고 안정을 취하라. 87년생 함께하는 과정에서 의외의 것을 얻는 바가 있으리라. <b>행운의 숫자 : 82, 36</b>	<b>酉</b>	45년생 심오하고 미묘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입지에 놓인다. 57년생 시시한 것을 가까이하면 대단히 불리해진다. 69년생 피하러 하지 말고 맞대응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 81년생 손발이 척척 들어맞음이 순조로움을 더하리라. <b>행운의 숫자 : 56, 73</b>
<b>辰</b>	40년생 기교가 첨가된다면 더 할 나위 없겠다. 52년생 과격적인 행보가 있을 수다. 64년생 가랑잎에 불꽃이 일어나는 기세이다. 76년생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다. 88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b>행운의 숫자 : 84, 76</b>	<b>戌</b>	46년생 신속하고 정확해야만 성취할 수 있다. 58년생 현황을 유지하기 위한 복합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70년생 기왕 행할 바에는 자발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성공적이다. 82년생 당연치 않았던 점에 대해 의구심이 생긴다. <b>행운의 숫자 : 80, 18</b>
<b>巳</b>	41년생 점점 내성이 생기면서 적응하게 될 것이다. 53년생 켈거를 이루리라. 65년생 믿는 도끼도 세심하게 살펴보자. 77년생 차별화시키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89년생 단독으로 행하지 말고 길잡이의 함께하도록 하라. <b>행운의 숫자 : 27, 30</b>	<b>亥</b>	47년생 임시적이지만 전혀 집착할 필요 없다. 59년생 기본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라. 71년생 먼 장래를 생각하면서 넓고 크게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83년생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호기가 주어질 수 있다. <b>행운의 숫자 : 51, 46</b>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